

04 고교·대학 비용

사교육비, 어디에 쓰는 것이 남는가

통계가 말하는 것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숫자부터	2
02 무엇이 안 보이나	3
03 어떻게 정하나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학교급별 **참여율과 월평균** — 3년 환산까지
- ◆ **가장 급하지 않은 시기에 가장 많이 참여합니다** — 초등 84.4% 대 고등 63%
- ◆ **남는 쓰임과 덜 남는 쓰임** — 값은 같은데 남는 것이 다릅니다
- ◆ **늘리기 전에 물을 넷 · 석 달마다 다시 묻는 점검표**

01 · 숫자부터

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나

「다른 집은 얼마나 쓰나요..」

비교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**가늠하려고** 묻으십니다. 그런데 **평균을 알아도 판단이 안 됩니다.** 필요한 것은 「어디에 쓰는 것이 남는가」 이고, 그건 평균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.

국가데이터처·교육부 조사입니다. **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**입니다.

학교급	참여율	참여 학생 월평균	3년이면
초등학교	84.4%	51만 원	약 1,843만 원
중학교	73%	63만 원	약 2,275만 원
고등학교	63%	79만 원	약 2,855만 원

초·중·고 열두 해를 다 세면 **억대**가 됩니다. 그리고 **참여율은 초등이 가장 높습니다**(84.4% 대 63%).

과목별로는 **영어 13만 원 · 수학 13만 원**입니다(전체 학생 기준). **영어가 수학보다 큼니다.**

출처: 국가데이터처·교육부 「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」. 3년 환산은 저희 계산이며 실제로는 학년·시기마다 다릅니다.

02 · 무엇이 안 보이나

총액이 결과를 안 만듭니다

돈을 많이 쓰는 시기와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어긋나 있습니다.

	참여율	그런데
초등	84.4%	제도가 초등 성적을 세지 않습니다
중등	73%	중3 수학 보통학력 이상 49.6%
고등	63%	가장 필요한데 참여율이 가장 낮습니다

첫째 줄과 셋째 줄을 나란히 보십시오. 가장 급하지 않은 시기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, 가장 급한 시기에 가장 적게 합니다.

둘째 줄도 함께 보십시오. 초등 참여율이 84.4%인데 중3 수학에서 보통학력을 넘는 학생은 49.6%입니다. 초등에 많이 한 것이 중등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

총액이 아니라 무엇에 썼는가입니다

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 보는 것은 같은 돈을 쓰고도 결과가 갈리는 경우입니다. 그 차이는 대개 「무엇을 배우려고 썼는가」에 있습니다.

남는 쓰임	덜 남는 쓰임
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는 것	이미 되는 것을 또 하는 것
혼자 못 하는 것을 배우는 것	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것
불안이 아니라 진단에서 나온 것	남들이 해서 하는 것

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같습니다. 그런데 남는 것이 다릅니다.

출처: 2025 사교육비조사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(2025). 쓰임에 대한 구분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통계가 아닙니다.

03 · 어떻게 정하나

늘리기 전에 물을 것

학원을 늘릴지 말지는 이 넷을 물으면 대개 정해집니다.

Q. 하나 — 무엇을 배우려는가

「성적이 떨어져서」는 답이 아닙니다. 어느 단원이, 왜 안 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앞서 다룬 대로 수학은 무너진 자리와 성적이 떨어진 시점이 다릅니다. 지금 진도를 두 배로 해도 앞이 비어 있으면 안 채워집니다.

진단이 먼저입니다. 지난 학년 문제집 한 권이면 됩니다.

Q. 둘 — 이걸 늘리면 무엇이 줄어드는가

하루는 정해져 있습니다. 수업이 늘면 혼자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.

그런데 실력을 만드는 것은 혼자 하는 시간입니다. 학원은 그 시간을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 주는 것입니다.

혼자 하는 시간이 이미 없다면 늘리는 것이 오히려 성적을 깎을 수 있습니다.

Q. 셋 — 석 달 뒤에 무엇으로 확인하는가

미리 정해 두십시오. 「성적이 오르면」은 너무 늦고 거칩니다.

「석 달 뒤에 이 단원을 아무것도 안 보고 풀 수 있는가」처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십시오.

정해 두지 않으면 관성으로 계속 다니게 됩니다. 필요가 끝났는데 계속 다니는 경우가 흔합니다.

Q. 넷 — 이것이 아이의 필요인가 부모의 불안인가

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가장 정확한 질문입니다.

불안할 때 학원을 늘리는 것은 가장 손쉬운 행동입니다.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.

그런데 그건 부모의 불안을 다루는 일이지 아이의 성적을 다루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결제하기 전에 하루만 두고 보십시오.

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. 통계가 아닙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점검표

학원을 늘리기 전에

- ☐ 무엇이 **비어 있는지** 진단해 보았는가
- ☐ 「성적이 떨어져서」 말고 **구체적인 자리** 를 말할 수 있는가
- ☐ 지금 아이에게 **혼자 하는 시간** 이 있는가
- ☐ 늘리면 **그 시간이 남는가**
- ☐ 아이에게 **쉬는 시간** 이 하루에 있는가
- ☐ **석 달 뒤에 무엇으로 확인** 할지 정했는가
- ☐ 이것이 **아이의 필요** 인가
- ☐ 이미 되는 것을 **또 하고 있지** 않은가

지금 다니는 것에 대해

- ☐ 석 달 전보다 **나아진 것** 이 있는가
- ☐ 아이가 **왜 다니는지** 말할 수 있는가
- ☐ 필요가 **이미 끝난 것** 은 없는가
- ☐ 관성으로 **계속 다니고** 있지 않은가

아래 넷을 석 달마다 물어보십시오. **줄이는 판단이 늘리는 판단만큼 중요합니다.**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**이 자료의 목적은 사교육을 줄이시라는 것입니다.** 정확히는 「**필요 없는 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쓰시라**」는 것입니다. 저희도 학원이니 이 말이 손해입니다. 그래도 말씀드리는 까닭은, **필요 없이 오래 다닌 학생과 학부모가 결국 학원 전체를 못 믿게** 되기 때문입니다. **필요할 때 오시고, 끝나면 그만두시는 것**이 서로에게 낫습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사교육비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평균보다 적게 쓰면 뒤처지나요?

평균은 판단의 잣대가 못 됩니다.

평균에는 아주 많이 쓰는 집이 섞여 있어 실제보다 높게 보입니다. 그리고 지역·학년·과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. 「우리가 평균보다 적다」가 「부족하다」는 뜻이 아닙니다.

그리고 앞서 본 대로 초등 참여율 84.4%인데 중3 수학 보통학력 이상이 49.6%입니다. 총액과 결과가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.

보셔야 할 것은 「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있는가」입니다. 그건 남과 견뎌서는 알 수 없고, 아이를 봐야 합니다.

Q. 돈을 아껴야 하는데 무엇부터 줄이나요?

세 가지 순서로 보십시오.

첫째, 이미 되는 것. 같은 유형을 계속 맞히고 있으면 그건 연습이 아니라 시간입니다. 가장 먼저 줄이실 자리입니다.

둘째, 혼자 할 수 있는 것. 앞서 다룬 대로 편제표 읽기·요강 확인·기출 풀기는 집에서 하십시오. 인터넷 강의로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.

셋째, 진단 없이 시작한 것. 왜 다니는지 아이도 부모도 답을 못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십시오.

마지막까지 남길 것은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는 수업입니다. 그건 혼자 하기 어렵고, 미루면 비용이 커집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사교육은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메우는가입니다. 진단이 먼저이고, 석 달마다 다시 물어십시오.

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데이터처·교육부 「2025년 초·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」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(2025)입니다. 3년 환산과 쓰임에 대한 구분은 저희 계산과 판단이며 가정마다 다릅니다.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